

2020년 9급 지방직 국어(D형) 해설

제공 : 유두선 선생

1. ① ‘부터’는 시작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먼저’와 의미 중복
② ‘만’은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오로지’와 의미 중복
③ ‘마다’는 낱낱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각각’과 의미 중복
④ ‘더러’는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고, 무척은 ‘부지런히’를 꾸미는 부사로 의미 중복은 없다.

정답 ④

2. ①은 게임업체의 문제점이 제시된 것이지 인터넷 중독 문제와는 관련이 없음 ②, ③, ④는 모두 인터넷 중독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

정답 ①

3. ② 늦어서 죄송하다는 김대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화
① 의견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오뎅한 대화를 했다는 내용은 김대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말이다.
④ 김대리에 대한 칭찬은 없다.

정답 ②

4. ① ‘~노라고’는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바르게 표현되었다.
②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은 결제(決濟)라고 표현한다.
③ 겹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의 의미는 ‘겉잡아서’로 쓴다.
④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의 뜻은 ‘갈음하다’이다.

정답 ①

5. ③ 답지를 먼저 읽고 작품을 읽으면서 확인하자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다.

정답 ③

6. 1단락에서 ‘그러나’ 이후에 중심 문장이 있다. 즉 환경 개변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가 핵심내용이다. 2단락은 그 예로 인간도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성

을 보인다는 내용이다.

정답 ③

7. <보기> 내용은 업계 1위 자리를 내주었다가 다시 탈환했다는 것이다. ② 권토중래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① 토사구팽 : 필요할 땐 소중히 하며 이용하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③ 수불석권 :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익힘

④ 아전인수 : 어떤 일이든지 자기 좋을대로 해석함

정답 ②

8. ① 본말과 준말이 있을 때 준말에는 모음 어미를 활용하지 않는다. ‘머물렀다’로 표기한다.

② 머무르+면서 ③ 서툼+ㄴ → 서툼 ④ 서투르+므로

정답 ①

9. 1단락은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2단락은 앞에 ‘그러나’로 볼 때 주장은 2단락에 있다. 사진은 원본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답은 ④이다.

①은 첫단락에 있는 말이다. ②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③ 마지막줄에 제한적이 아니고 다양하다 했다.

정답 ④

10. ① 유기(遺棄)는 내다버림, 여기서는 ‘포기’가 적당하다

② 근절(根絶)은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뿌리째 없애버림, 여기서는 ‘유기’가 적당하다.

③ 투기(投棄) : 내던져 버림 바르게 쓰였다.

④ 포기(拋棄)는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여기서는 ‘근절’이 적당하다.

정답 ③

11. ① 이중 피동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뽑고’로 고치면 안된다. 피동의미로 써야 하므로 ‘뽑히고’가 바르다.

정답 ①

12. ㉔는 반성적 자세의 결말에 해당한다. ㉓의 경우는 결말은 좀 더 지켜봐야 겠다. 정도의 표현이 좋다.

정답 ㉔

13. 이첨의 가전체소설 「저생전」의 서두이다. 종이를 의인화하여 부패한 선비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정답 ㉔

14. 말뚝이가 사설을 늘어 대목은 음악과 춤을 멈춘 상태이므로 ‘긱거리장단’에 맞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㉓

15. ㉔ 내(內)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 ㉑ 둘 다, 본용언이므로 띄어 쓴다. ㉓ ‘데’는 ‘곳’의 의미를 지닌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㉔ 부정어 앞에서 ‘밖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정답 ㉔

16. ㉑ 첫 문장에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다. ㉒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란 문구에서 알 수 있다. ㉓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란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조망은 아이들이 넘을수 있었던 높이였다. ㉔ 선창 간이 음식점에서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먹을 것이 나왔다고 서술되어 있다.

정답 ㉓

17. ㉑은 새로운 바이러스 ㉒은 면역반응 ㉓ 숙주와 바이러스의 죽음

정답 ㉓

18. 인접 단락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 답지를 먼저 보면 ‘ㄱ’과 ‘ㄴ’중에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ㄱ’이다. ㄱ의 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ㄷ’에서 더 구체화 되고 그 뒤에 소득 증가 이유를 말한 ‘ㄹ’이 온다. 따라서 답이 ㉑번이다.

정답 ㉑

19. ① 확증편향에 해당한다. ②, ③ 둘째 단락에서 알 수 있다. ④ 새로운 정보에 대해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는 말은 지문에 없다.

정답 ④

20. ㉠의 주체는 유화, ㉡의 주체는 금와왕 ㉢의 주체는 아이(주몽) ㉣의 주체는 사람 ㉤의 주체는 금와왕 ㉥의 주체는 주몽, 따라서 ㉢, ㉥의 주체는 주몽이 답이다.

정답 ③

=====

총평 지방직 9급 경향과 대책

문제를 분석해 보면 문법이 5문항 독해, 쓰기, 화법이 8문항, 문학이 5문항, 한자 2문항이 나왔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기출문제에만 얽매인 사람들에게는 낯선 문제가 많았다.

문법은 단답식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겐 허망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어휘 공부나 문법 원리 중심의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독해는 지문이 길어져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독해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화법 문제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겐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것이다.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영역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준비를 해야겠다. 문학은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다. 가전체 소설이 출제된 점을 볼 때 다양한 고전 작품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한자를 우리말과 연결시킨 문제는 무척이나 새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한자는 한꺼번에 공부하기 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앞으로의 시험경향은 독해가 중심이 될 것이다. 체계적인 독해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법은 단순 암기보다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모든 직렬의 문제 유형이 모두 유사해 지고 있으므로 다른 직렬들도 이와 같은 공부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